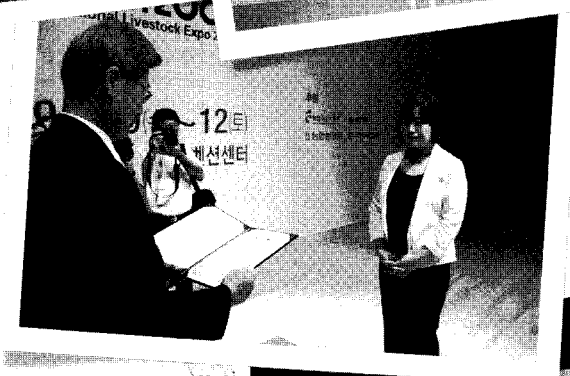
가을의 시작과 함께한 국내 최대 축산행사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개최

▲ 협회 서호원이사가 우수축산인 대상을 받고 있다

▲ 참석 내외빈들이 개막식 커팅을 하는모습



◀ 협회 여성분과위원회 문동숙 총무가 우수축산인 우수상을 받고 있다

▼ 우수전시업체 시상식 단체사진

▲ 개막식 전경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한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 9월 9일 대전KOTREX와 DCC에서 개막해 12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9일 DCC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장동일 대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과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이낙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홍갑 대전시행정부시장,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축산관련 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장인 장동일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역대 박람회 중 최대업체가 참가해 최대 부스를 마련했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축산 기술의 발전과 설비 현대화를 유도하는 축산 발전의 혁신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박람회장 내 협회 홍보부스

▲ 골밀도 측정

▼ 참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 젖소캐릭터와 우유소년

◀ 시식회장에 붐비는 사람들

▲ 이동하며 참관객들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 등에 초점을 맞춘 신기술 · 신개념의 축산기자재들이 속속 선보이면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기자재부문의 발 빠른 패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특히 예비 축산인들의 자원봉사와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전체 자원봉사자 36명 가운데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20명으로 대다수가 축산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돼 학기 중에도 불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대회 기간 내 활력소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박람회 동안 특별한 이벤트로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기증 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축산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선 경매행사와 행운의 페널티킥, 축산 OX 퀴즈 등이 열려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시식회장에선 우유로 만든 요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우유오리 모형 앞에서 참관객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다

▶ 젖소캐릭터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젖소모형과 사진찍기 이벤트가 인기다

▲ 홍보 부스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있는 참관객들

이번 박람회에서 시식회장은 가장 사람이 붐볐는데, 축산관련단체에서 준비한 시식회장은 전시장을 둘러본 참관객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줘 단연 인기였다.

마지막 날인 12일 열린 우수전시업체 시상식에서는 삼우엔지니어링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우수 전시업체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에 (주)이레(대표 탁동수), (주)라이브맥(대표 김병관), (주)우성사료(대표 지평은)가 각각 수상했고, 우수제품상인 대회장상은 범진시스템(김흥순), (주)상일테크(정상택), 성일기전(이영윤), 한국양계TS(주)(김영환), (주)애드바이오텍(정홍걸), 대산축산솔루션(주)(최대식), (주)에이치비이피(김형종) 등이 수상했다.